

모두 발언

2024. 7. 15.(월) 10:23~10:26(3분)
금융감독원(9F)

금 융 감 독 원
원 장 이 복 현

I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입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일정에도

금번 「금감원-서울남부지검 합동 워크숍」에 참석해 주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신웅석 검사장님과

김종우 제2차장검사님,

그리고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법 시행 준비 경과 및 향후 계획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이 본격적으로 규제체계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그간 법 시행에 대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감독·조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하위규정의 제정과 더불어

예치금보호 등 법상 의무의 세부 이행방안 마련,
이상거래 감시 가이드라인 제공 등

사업자의 규제이행 준비를 적극 지원해왔습니다.

법 제정과 자율규제 등을 통해
가상자산 규율체계의 기본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법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행위, 발행·공시 등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는 남아 있으며,
이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의 조사에도
어려움을 줄 듯 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으로의 리스크 전이를 차단하기 위해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행 규제체계 내에서
금감원과 검찰 간 조사·수사 공조를 강화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금융위 등 정책당국과는
현행 규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III 검찰과의 공조 강화

가상자산시장 특성상
불공정거래 수법을 예측하기 어렵고
대규모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있어
금융당국의 대응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과 함께
시장의 잠재리스크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조사·수사 협력방안을 협의하는 등
검찰과의 공조를 위해 노력해왔고,

이번 워크숍 또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매매분석 플랫폼이
양 기관의 불공정거래 조사·수사 역량 증진과
공조 강화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며,

법 시행 이후에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서울남부지검과 긴밀히 협력하여
중대 범죄 혐의 및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사건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금융당국과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시장의 범죄 척결을 위해
다년간의 공조를 통해 수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제 가상자산 관련 범죄 분야에서도
검찰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